

#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를 통해 본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설계 전략

강연주\* · 김정화\* · 배정한\*\*

\* (주)우리엔디자인펌 ·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Design Strategies for Urban Parks as Urban Infrastructure - An Analysis of the Landscape Design Competition for the Incheon Cheongna District, Korea -

Kang, Yon-Ju\* · Kim, Jung-Hwa\* · Pae, Jeong-Hann\*\*

\*URIEN Design Firm, Inc.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critically examine the result and the quality of urban park design as infrastructure by analyzing the landscape architectural design competition for Cheongna New City, which was organized by the Korea Land Corporation. This paper is meaningful in that it broadly examines several recent design competitions for urban parks, thereby discussing what the future urban park should be.

This study explores the existing analysis methods of design competitions in order to establish a comprehensive method of analysis for the Cheongna competition. Through reinterpreting the concept of the urban park as infrastructure and the design strategies of landscape urbanism, nine key words and a framework for the analysis of urban park design are established. By analyzing the guidelines for the competition, five key words; networking, site, ecology, scale, and infrastructure have been selected and are used as the framework of analysis for the competition.

The analysis of the contestants of the competition based on the proposed analysis method leads to a few implications for urban park design as infrastructure: networking and scale from the perspective of the development site; the creation of a sense of place and symbolism in creating the urban image; planning for an ecological urban environment; focus on the significance of the urban park as infrastructure. These implications are highlighted and discussed by the contestants through a variety of experiments. These ideas, however, are provided as a simple configuration of shapes and conceptual explanations and fail to be developed into synthetic, practical strategies.

*Key Words: Landscape Urbanism, Networking, Site, Ecology, Scale*

**Corresponding author:** Jeong-Hann Pae, Dept. of Landscape Architecture and Rural System Engineering,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151-921, Korea, Tel.: +82-2-880-4877, Email: jhannpae@snu.ac.kr

##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한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2008)의 분석을 통해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설계의 성과와 그 수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한다. 이는 최근 도시공원 조경설계공모에 대한 이론적 비평이자 도시공원의 미래 위상을 구상하는 작업의 하나라는 의의를 지닌다.

기존에 연구된 설계공모 분석 방법을 고찰하여 인천청라지구 설계공모에 적합한 다층적 분석 방법을 마련하였고,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에 대한 개념 연구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 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도시공원 설계를 위한 9가지 주요어와 분석 항목의 틀을 작성하였다. 또한, 청라지구 설계공모의 지침을 분석하여 앞의 분석틀을 네트워킹, 부지, 생태, 스케일, 인프라스트럭처의 5가지의 주요어로 다시 정리한 후, 이를 청라지구 설계공모 출품작의 분석틀로 사용하였다.

청라지구 설계공모 출품작들에 대하여 설계 전략과 개념을 살펴보는 방법과 분석틀을 통하여 살펴보는 방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종합 분석한 결과,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을 설계하는 태도에 대한 몇 가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개발지구라는 대상지의 특성에서 기인하는 상호 연관된 네트워킹과 스케일의 문제, 도시 이미지의 구축을 위한 장소성과 상징성의 창출, 그리고 생태적 도시 환경의 조성 과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도시공원의 역할의 강조 등이 각 출품작들에서 나타났으며, 이는 출품작마다 다양한 해석을 통해 제안되고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작품에서 이러한 전략들은 단순한 형태의 구현이나 개념적인 해석에 머무른 경향이 있었으며, 통합적이고 실천적인 전략으로 발전되지 못한 아쉬움을 남긴다.

주제어: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네트워킹, 부지, 생태, 스케일

## 1. 서론

### 1. 연구 배경과 목적

도시기반시설은 도로, 상하수도 등의 물리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그 체계와 사회적, 법적 개발 정책 등을 모두 포괄하는 총체적인 개념이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은 도시의 경제, 사회, 역사, 문화의 산물이자 그 축진제로서 상호간에 밀연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다(한국토지공사, 1998). 또한, 도시공원은 도시기반시설의 일부분으로 도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공헌하며, 환경보전, 재해 방지, 경관 향상, 지역 이미지 제고 및 토지나 건물의 경제적 가치를 향상시키고 있다(홍성권 등, 2007).

2005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도시공원법'이라고 한다)의 개정과 함께 개발계획 수립 시 도시공원 또는 녹지 확보가 개발 수준에 따라 계량화·의무화되었고, 시공원 위원회의 자문과 지방의회 의견 청취 절차가 추가되는 등, 도시공원의 질적·양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토대가 형성되었다. 그러나 이는 개발지구<sup>1)</sup>의 도시공원에 대한 질적 변화를 선도하는 적극적인 대안이 되기는 어려웠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도시공원의 설계 방식에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최정민, 2007). 이러한 맥락에서 주로 가격 경쟁(설계가 입찰)이나 자격 경쟁(PQ, 사전자격심사) 등으로 시행되어 왔던 기존의 공원 설계 방식에 대한 대안으로 설계 경쟁(설계공모)의 방식이 제시되었고, 2007년 판교 신도시 공원설계 현상공모를 필두로 현재까

지 십여 개에 달하는 개발지구 공원 현상공모가 쏟아지고 있다. 그러나 개발지구 내 대규모 공원에 대해 천편일률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이러한 설계공모는 그 양적 성장에 비해 공모 방식의 후진성, 설계안의 질적 수준, 심사의 공정성 여부, 후속 비평의 부재 등과 같은 여러 가지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2008년 한국토지공사가 시행한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 출품작들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현재 우리나라 개발지구의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 설계의 성과와 그 수준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다. 본 연구는 적절한 반성적 논의 없이 양산되고 있는 최근의 조경 설계공모에 대한 이론적 비평(조경비평 붐, 2008)이라는 의미를 지니며, 또한 도시공원의 미래지향적 위상을 구상하는 작업이라는 의의를 지닐 수 있을 것이다.

### 2. 연구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토지공사가 주최한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2008) 출품작 8개를 대상으로 설계공모 지침서와 각 출품작의 도판 및 설계 설명서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분석을 위한 기초 작업으로, 첫째, 기존의 연구들이 채택한 설계공모 작품 분석의 방법들을 고찰하여 인천청라지구 출품작 분석에 적합한 방법을 모색한다(I장 3절 참조). 둘째,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개념 연구와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 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최근의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

공원 설계에 관한 분석들을 작성한다(II장 참조).

이상과 같은 이론적 고찰을 통해 작성한 분석의 틀과 방법을 인천청라지구의 특수한 상황에 적용하기 위해, 설계 지침과 대상지의 특성을 해석하고 각각의 출품작 분석에 적합한 요소와 방법을 추출한다(III장). 출품작 분석은 각 작품별로 설계 과정에 따른 내용과 설계 전략을 검토하는 과정(IV장 1절 참조), 그리고 분석틀에 따라 분석하는 과정(IV장 2절 참조)을 거쳐, 작품별로 종합 분석을 진행한다(IV장 3절 참조).

### 3. 관련 연구의 경향

설계공모 분석에 관한 기존의 연구는 2000년을 기점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 김수연(2000)은 사회·문화·정치적 관점에서 설계 대상지의 컨텍스트인 맥락을 분석하고 설계가가 사용한 텍스트인 설계 언어를 분석하는 방법을 통해 여의도공원 설계공모 출품작을 연구하였다. 위재송(2003)은 유사한 방법으로 10년간의 공원 현상설계 경향을 분석한 바 있다. 조경진과 김정호(2001)는 파리 서울공원 현상공모 출품작을 중심으로 전통 정원의 현대적 재현의 특성을 진단하면서 대상, 매체, 표현 방법을 재현의 세 가지 양상으로 파악하여 각각의 출품작을 분석하였다.

한편 배정환(2002)은 조경설계의 새로운 전략을 제시하고 있는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를 대상으로 각 출품작들의 주요 개념과 당선작의 전략을 분석함으로써 도시공원의 새로운 의미와 역할을 진단하였다. 이상민(2004; 2006)은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를 연구하면서 공모전 자체에 대한 분석과 입선작 5개에 대한 개념, 공간, 프로그램 위주의 분석을 통해 한국 공원설계에 나타나고 있는 새로운 변화와 시도들에 주목하였고, 또한 매체로서 조경설계의 특성과 변화를 진단하였다. 김아연(2005; 2006)은 현대 조경설계 경향에 대한 이론적 연구를 바탕으로 설계의 분석틀을 추출하고, 그 분석틀을 브리지파크 국제설계경기의 수상작 및 춘천 G5 국제설계경기 출품작에 대입함으로써 조경설계의 새로운 경향과 쟁점을 고찰하였다. 서준원(2008)은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 출품작 분석을 통해 한국과 서양의 설계 개념에 대한 비교 분석을 진행하면서 설계 개념, 개념 유형, 공간 구성 등의 세 가지 요소로 분석틀을 작성하였으며, 개념적 사고가 설계로 이어지는 과정을 고찰하였다.

위와 같은 최근의 연구에서 설계안 분석 방법에 대한 몇 가지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동시대 설계 경향이나 설계의 특정한 속성에 바탕을 두고 설계안을 분석하는 방법이다. 재현의 속성에 토대를 두고 분석 방법을 작성한 조경진과 김정호(2001)의 경우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을 틀로 삼아 설계안을 분석한 김아연(2006)의 예가 그러하다. 둘째는 배정환(2002)의

경우와 같이 각 작품별로 설계 개념과 전략을 고찰함으로써 새로운 변화나 설계 경향을 귀납적으로 추출하는 방법이다. 셋째는 설계 대상지의 맥락과 설계 언어를 각 작품별로 분석하여 작품들의 공통된 경향이나 새로운 흐름에 대한 종합적 파악을 시도하는 방법으로, Baljon(1992)의 라빌레트 공원 설계공모 분석 방법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김수연(2000)과 위재송(2003)의 연구가 이러한 계열에 속한다.

본 연구는 위와 같은 여러 분석 방법을 종합적으로 적용하여 분석과 평가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관점에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분석틀을 작성하고, 인천청라지구는 대상지가 갖는 특수한 맥락(컨텍스트)과 출품작들의 고유한 설계 언어(텍스트)를 추출하는 방법을 시도하며, 이를 다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분석틀과 대응시키는 다층적 분석 방법을 사용한다.

## II.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도시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생명체와 같다. 도시의 역동성과 다양성은 스스로 발전·진화하며 고유한 질서와 규칙을 만들어간다. 도시의 뼈대와 기초에 해당하는 도시기반시설은 도시의 확장성과 유연성을 받아들이는 기본적인 요소로서 도시의 모든 조직 및 양상과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도시기반시설은 고정적이고 불변하는 물리적 요소나 구조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유기적으로 살아 움직이는 도시의 모습들을 제대로 담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에 맞게 스스로 변화하고 적응하는 일종의 그릇이 필요하다. 따라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을 바라보는 태도에는 도시의 다양하고 복합적인 양상을 담아내는, 그 자체로 살아 움직이는 유연한 그릇으로서의 도시공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물음이 담겨 있다.

개발지구의 도시공원은 개발계획의 수립과 함께 도시의 새로운 틀을 조직해 나가는 과정 속에 있다. 이러한 개발계획으로 인해 기존 지역의 물리적, 지역적, 사회적 조건들은 급격한 변화를 겪게 되며, 이는 또한 지역의 정체성을 상실하게 하고 특징 없는 도시 경관을 양산해왔다. 도시공원 역시 기존의 장소적 맥락보다는 새로운 관계와 결합하게 되고 이전의 역사보다는 이후의 역할에 치중하게 된다. 그러나 도시공원은 다른 도시기반시설들과 달리 공간시설로 분류되며, 공간으로서 도시공원의 개념 속에는 '부지(site)'와 '시간'의 차원이 포함된다. 시간의 맥락 속에서 대상지를 대하는 태도에는 새로운 개발로 인한 단절을 극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담겨 있다. 이는 도시의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기여하여, 활력 있고 발전 가능한 열린 도시의 미래를 위한 근간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도시공원은 개발계획도 상에 구획된 경계와 면적의 틀 속에서 작동하는 단순한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다. 도시공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복잡성과 다양성을 모두 수용할 수 있는 유연하고 열린 구조를 갖추어야 한다. 또한, 개발지구의 역사적 맥락을 보존하고 담아내기 위한 대안으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를 복잡하고 유동적인 유기체로 파악하는 경향은 경관(landscape)을 중심에 두고 도시를 인식하고 구성하고자 하는 '랜즈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은 역동적인 현대의 도시화 속에서 '경관'의 변화와 연속성, 개방성, 그리고 유동성 모두를 포용하는 설계 사고이자 태도이다. 또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의 미래 개발과 변화 가능성을 포괄하는, 열린 도시를 위한 새로운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하고자 한다(배정환, 2004).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도시공원은 정태적이고 낭만적인 녹색의 휴식처라는 차원을 넘어서 도시 구조를 적극적으로 개선하며 활성화시키는 도시의 기반시설로서의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은 도시 전반의 문제뿐만 아니라 도시공원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에 대해서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관점에서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을 고찰하는 방식은 의미를 지니며, 개발지구 도

시공원의 설계 전략을 구상하는 하나의 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에서는 랜즈케이프 어바니즘과 관련된 대표적인 이론서인 「랜즈케이프 어바니즘」(Waldheim *et al.*, 김영민(역), 2007)과 「현대 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배정환, 2004), 그리고 「Large Parks」(Czerniak *et al.* 2007)를 대상으로 각 책의 저자들이 초점을 두고 있는 주요 키워드 또는 전략을 표 1과 같이 추출하고 종합적으로 분석하였다.

표 1과 같은 내용 분석(content analysis) 작업을 통해 동시대 이론가들과 설계가들의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적 경향과 전략을 검토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 번째 전략은 네트워킹(networking)이다. 특히 연계성이 강조되고 있는데, 이는 경관의 단순한 물리적인 연계가 아니라 도시의 장에서 작동하는 모든 힘과 요인이 상호 연관되는 시공간적 관계 속의 역동적 매트릭스를 의미한다. 두 번째는 수평적 판(horizontal surface)이다. 도시의 수평적 연속성, 열린 구조 등에 주목하고 있으며, 움직임과 이동성의 전략을 포함한다.

세 번째는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이다. 비결정적인 도시의 구조와 형태에 관련하여 도시기반시설의 역할을 강조하는데, 이 때 인프라스트럭처는 물리적 측면은 물론 사회·문화적·정책적 측면을 모두 포괄한다. 네 번째는 과정(process)이다. 공간의 형태보다 시공간의 작동 과정에 초점을 둔다. 따라서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고 대응하는 유연성과 비

표 1. 랜즈케이프 어바니즘의 주요어 매트릭스

저자(년도)	네트워킹	수평적판	움직임/이동성	인프라스트럭처	시간/과정	유연성/비결정성	부지	스케일	생태	협업/혼성	작동/실행방법	상상력	매체
Anita Berzbeitia(2007)					●	◎		◎			◎		
Charles Waldheim(2007)				●					●	●			●
Chris Reed(2007)	●			●					●	●			
Christophe Girot(2007)			●				●						
Elizabeth Mossop(2007)			●	●			◎	◎	◎	●			
Elizabeth K. Meyer(2007)					●		●	◎			◎		
George Hargreaves(2007)	◎				◎	◎	●	●			●		
Grahame Shane(2007)				◎					●	◎			
James Corner(2007)	◎	●	◎	◎	●	◎	●	◎	●	◎	●	●	◎
Jaqueline Tatom(2007)				●				●	●	●			
John Beardsley(2007)	◎			●					◎	◎			
Julia Czerniak(2007a; 2007b)	◎		◎	◎	●		●		●				
Kelly Shannon(2007)	●			●					●	●			
Linda Pollak(2007a; 2007b)					●	◎	●	●	●		◎		
Nina-Marie Lister(2007)									●				
Pierre Belanger(2007)		●			◎						◎		
Richard Weller(2007)			●				●						
배정환(2004)		●		●	●				●	●			

범례: ● 구체적 전략으로 제시, ◎ 다른 전략에 대한 부수적 설명

결정성을 포함하며 '과정의 설계'에 주목한다.

다섯 번째는 부지(site)이다. 고유의 내재적 시스템과 역동적 특성을 통해 부지의 특수성을 찾아내며, 거주자를 위한 진정한 의미의 장소성을 강조한다. 여섯 번째는 스케일(scale)이다. 광역적으로 도시를 다루는 것과 세밀한 범주를 넘나드는 것, 즉 다양한 스케일의 중첩이 중요하며, 이는 공간적 정체성을 표현하는 방식으로 사용된다.

일곱 번째는 생태(ecology)이다. 이는 도시를 하나의 생태적 프로세스로 바라보는 것으로, 단순히 대상지 내의 생태적 안정성만을 고려하는 것을 넘어선다. 여덟 번째는 협업 또는 혼성(hybrid)이다. 분야 간의 협업뿐만 아니라 개념의 혼성과 시공간상의 다양한 스케일 변화에 대한 가능성, 기법의 공유, 표현의 새로운 방법 등 다양한 차원의 하이브리드를 통해 전략적인 테크닉을 제시한다. 이는 작동과 실행의 방법으로 기능하게 된다.

아홉 번째는 상상력(imaginary)이다. 구체적인 전략이라기 보다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근본적인 정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인간의 다양성과 창의력이 집합적 기억과 새로운 관계의 가능성을 담보한다는 입장으로, 20세기 도시계획을 대변하는 합리적(rational) 계획의 한계에 대한 대안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매체(medium)는 하나의 분석 전략이라기보다 경관(landscape)의 변화하며 연속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총체적인 현상이므로, 본 연구에서는 별도의 전략으로 제시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분석을 통해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핵심 전략과 경향을 종합하여 주요어와 분석 항목을 중심으로 하는 분석틀을 작성한 결과는 다음의 표 2와 같다.

### III.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 설계지침 분석

#### 1. 설계공모 개요

한국토지공사가 주최 및 주관한 인천청라지구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 조경현상설계공모(2008)는 제한적 일반 공개 경기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주제공원 3개소(699,535m<sup>2</sup>)를 포함하는 근린공원 29개소, 어린이공원 14개소, 기타 완충녹지, 경관녹지, 공공공지 등 총 면적 3,849,476m<sup>2</sup>이 설계 대상이며, 한국토지공사의 "현상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규정"에 의해 심사위원회가 구성되었다<sup>2)</sup>.

설계의 대상지인 인천청라지구는 송도지구, 영종지구와 더불어 인천경제자유구역 중 하나이다. 청라지구는 과거 갯벌이었던 곳으로 1980년대에 농경지 확보를 목적으로 매립하여 1990년대부터 현재까지 주로 농사가 이루어지고 있다. 청라지구의 서쪽 바닷가에 위치한 청라도는 매립 이전에 섬으로 존재

표 2.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전략별 분석표

설계전략	주요어	분석 항목
네트워킹 (networking)	연계성 매트릭스	① 작동하는 모든 힘과 요인을 상호 연관지었는가? ② 시공간적 관계의 매트릭스가 적용되었는가?
수평적 판 (horizontal surface)	연속성 이동성	① 수평적으로 연속되고 열린 구조인가? ② 현대 도시의 이동성 및 움직임에 주목하였는가?
인프라 스트럭처 (infrastructure)	유연성 가능성	①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려하였는가? ② 사회·문화적 측면을 고려하였는가? ③ 법규, 정책 등을 고려하였는가?
과정 (process)	변화 대응성 유연성	① 변화에 대한 유연성이 고려되었는가? ② 비결정성이 포함되었는가? ③ 과정의 설계가 이루어졌는가?
부지 (site)	특수성 장소성	① 부지의 내재적 시스템과 특성을 고려했는가? ② 사회·역사·문화적 장소성을 구현하였는가?
스케일 (scale)	다양성 중첩	① 광역적 스케일로 도시를 바라보는가? ② 스케일의 중첩을 통하여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였는가?
생태 (ecology)	총체성 생태복원	① 도시를 생태적 프로세스로 바라보고 있는가? ② 대상지 환경 복원을 생태적으로 시도하고 있는가?
협업/혼성 (hybrid)	협업 혼성 테크닉	① 건축, 예술 등 다른 분야와의 협업이 이루어졌는가? ② 계획과 설계 과정이 분리되지 않고 통합되었는가? ③ 표현이나 기법의 새로운 방법을 적용하였는가?
상상력 (imaginary)	다양성 창의성	① 합리적 사고방식에 결여된 새로운 유형의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가?

했던 곳으로 설계공모 대상지 안에 포함되어 있다.

공원녹지 중 대상지 중앙에 위치한 주제공원은 제 14, 15, 16 호 근린공원이 연결하여 형성하는 곳으로, 총 물 면적 254천m<sup>2</sup> 이상의 호수공원으로 계획하여야 한다. 주제공원의 남쪽과 북쪽으로 건천인 공촌천과 심곡천이 흐르며, 주제공원 중앙을 동서로 가로질러 너비 50m, 총 길이 3.4km 가량의 주운이 계획되어 있다. 이 주운을 따라 근린공원이 분포하고 주거지역 사이에 어린이공원이 산재하여 있으며,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을 서로 연결하는 녹지 띠가 주운에 수직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다.

#### 2. 설계지침서 분석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의 목적은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되었다. 먼저 첫 번째로 '글로벌 국제금융도시 청라'를 위한 참신성, 정주성, 장소성을 고양할 수 있는 공원을 제안하는 것, 그리고 환경과 삶의 질을 높이고, 변화하는 도시와 도시민의 일상에 적절하게 대응하는 공원 문화를 제안하는 것, 마지막으로 도시, 주거단지, 자연과 생태계를 중재하고, 문화를 융합하는 장으로서 공원의 역할을 제안하는 것이었다.

'세계 최고의 도시'를 위한 선도적이고 창의적인 아이디어 제시에 계획의 주안점이 있으며, 인천청라지구의 상징성, 특수

성 및 문화공간으로의 특성을 발굴·개선하여 매력적인 명소로서의 장소 창조(place making)가 요구되었다. 또한, 도시민의 접근성과 이용성을 고려한 자연친화적 공원 조성, 합리적 공간 설정 및 용도 배분, 이용 행태에 적합한 시설물과 식생 계획 등이 권장되었다.

상위계획인 경관계획이 제시하고 있는 도시 이미지 '세계의 푸른 보석 청라'와 시티타워, 음악분수, 그리고 호수 안의 섬에 조성하도록 한 대규모 공연장 등을 반영하고, 주운계획에 따라 주운공원 내에 선박 41대를 수용할 수 있는 선착장 4개소를 설치하는 것이 세부적 설계지침의 중요한 사항이다. 또한, 기본적으로 생태적 안정성에 기여할 수 있어야 하며, 주운공원 내에 전통문화공간과 수변시설 공간, 그리고 생태공간을 마련하도록 요구되었다. 그밖에 인접 대지의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도입과 보행 네트워크에 관한 지침이 제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주로 담고 있는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의 설계지침은 다음과 같은 점에서 특징을 지닌다고 분석된다. 첫째, 청라지구 전반에 대한 공원 및 녹지 구상을 요구하고 있으며, 각각의 공원이 체계적으로 연계되는 네트워크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주운공원을 도시의 중심 거점으로 파악하고 주변 지역과의 연계를 강조하고 있다. 둘째, 호수공원, 시티타워, 대규모 공연장 등의 계획을 유도함으로써 새로운 장소적 특성의 창조를 강조하였고, 공원을 통해 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명소화하려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셋째, 공원을 통한 자연 생태계의 복원 및 창조에 비중을 두고 생태적 안정성과 환경 복원의 장으로서 도시공원에 초점을 두고 있다. 넷째, 대규모 주운공원을 비롯하여 소규모 어린이공원과 근린공원, 그리고 주운과 맞닿는 부분들의 녹지 등에 관한 다양한 스케일의 공원 및 녹지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다섯째, 주운 시설을 통한 교통 및 문화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도시공원에 주목하고 있으며, 도시민의 문화 공간으로 기능하는 공원에 대한 설계를 요구하고 있다.

설계지침에서 요구된 설계 기준을 앞의 II장에서 작성한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 전략과 대응시키면 표 3과 같다.

표 3. 설계지침서의 설계 기준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 전략

설계지침서의 설계 기준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 전략
· 각 공원들 간의 체계적인 연계 네트워크 · 주운공원은 도시의 중심 거점, 주변과의 연계 강조	네트워크
· 새로운 장소적 특성의 창조 · 공원을 통한 도시 이미지 제고 및 도시의 명소화	부지
· 자연 생태계의 복원 및 창조 · 생태적 안정성과 환경 복원의 장	생태
· 다양한 스케일의 공원 및 녹지 강조	스케일
· 도시 환경과 기능을 강화하는 도시기반시설 · 도시민의 문화 공간의 기능	인프라스트럭처

설계지침이 표명하고 있는 인천청라지구 도시공원의 설계 기준은 네트워크, 부지, 인프라스트럭처 등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전략과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지만, 단순히 표면적으로만 제시된 경향이 짙다. 공간의 설정과 기능적 작동보다는 표피적 형태를 지나치게 강조하고 있는데, 단적인 예로 보석의 이미지로 공원의 테마를 설정할 것을 요구한 점, 상징적 형태 위주의 전통 문화 공간을 지나치게 강조한 점 등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IV. 출품작 분석

### 1. 작품별 설계 전략 분석

본 연구는 출품된 각각의 설계안에서 도시공원이 도시기반 시설로서 어떻게 인식되고, 또한 어떻게 작동하게 되는 지에 초점을 둔다. 그러므로 설계의 결과물보다는, 설계의 방식과 관련하여 대상지를 바라보는 시각이 드러나는 부분과 공원 설계의 전략 부분에 중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각 작품의 분석을 위해, 우선 설계의 흐름이 정리되어 있는 설계 설명서를 중심으로 설계 과정에 따른 내용 분석을 하였고, 설계 도판을 통해 이를 검증하였다. 이를 통해 각 출품작들의 설계 전략을 추출하였는데, 이상민(2006)이 설계 매체를 분류하며 혼재된 설계 언어를 범주화한 방식을 참고로 하였다. 각 작품별로 분석된 설계 개념과 전략을 중심으로 설계안의 주요 경향과 관점을 파악하였으며, 출품작의 마스터플랜은 표 4와 같다.

#### 1) 1등작 Crystal Wave(가원)

이 작품의 설계 설명서는 프롤로그-청라를 잇다-대상지를 읽다-청라공원을 구상하다-공원을 그리다-전략을 구상하다-공원을 들여다보다-식재계획-시설물 및 포장계획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프롤로그'에 나타난 설계의 개념은 자연의 물결을 그림으로써(crystal wave) 땅의 기억을 되찾고 공간을 새롭게 경작하는 것이다. 바다였던 대상지의 기억에서 물이 흐르는 문화의 경관을 만들고자, 물에 성격을 부여하고 그 물과 맞닿은 땅의 용도가 결정되는 방식으로 공원을 구상하고 있다. 또한, 공원녹지계획, 친수적인 도시 삶 계획, 친환경의 복합적 교통계획, 경관계획 등의 네 가지 공원 시스템을 제안하고 있다.

'전략을 구상하다'에 나타나는 공원의 주요 전략은 첫째 파크 에지(park edge)로, 다면적인 도시 패브릭(fabric) 속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8개의 공원 계획이다. 둘째는 3개의 도시의 큰 섬인 3 어번 빅 아일랜드(3 urban big island)로, 다양한 문화 행태를 담을 수 있는 진화하는 세 개의 섬이 제시된다. 셋째는 수공간의 감각(sense of water space)으로 다양한 물의 성격을 활용한 워터프런트 계획이다. 넷째, 대지의 다양한 물리적 특성을 구조화하고 공원 경계부와 친수부를 나누어 공원의

다면성을 확보한다. 다섯째, 문화를 담아내는 공원으로, 계절별·이용자별 프로그램을 제안한다. 여섯째, 숲의 다양한 구조 및 생물서식기반 조성을 위해 습지-초지-건초지-관목림-교목림으로 이어지는 횡단구조를 조성하고 기존의 목논을 활용한 자연 천이공간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대상지가 가지고 있는 본래의 속성을 물결(wave)로 보고 공원의 개발보다는 경작(cultivate)의 과정을 통해 새로운 도시공원의 정체성을 만들어 가고자 한다. 그러나 물결과 경작의 개념이 설계 전략으로 구체화되는 모습은 발견되지 않는다. “자연이 그린 선을 담아 공간 스스로가 본래의 형태를 찾아가는” 도시공원보다는 물의 성격과 주변부의 특성, 이용행태 등에 초점을 맞춰 다양한 문화와 서식처로서의 공원 기능과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공간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나 시도가 엿보이며, 전략을 통해 설계 과정을 자연스럽게 전개하고 있다.

## 2) 2등작 4th Treasure (성호엔지니어링과 신화건설팀)

설계 설명서의 순서는 프롤로그-대상지이해-도시기본계획개념 및 전략-네트워크체계-주제공원 계획개념과 기본구상-프로그램-공간별계획-친환경계획-녹지·식재·시설물 및 포장계획이다. 프롤로그를 통해 공원의 3차원적 한계를 넘는 연속적 상징과 의미로서 '4'를 설정하면서, 네 개의 섬, 뱀놀이 4,000m, 40개의 이야기 공원을 제안하고 있다. 조화, 소통, 자연, 휴면, 생태를 전략으로 삼고, 그린, 문화, 생태 네트워크를 통해 그린 인프라, 녹색 교통 시스템, 생물 서식처 연결 등을 제안하고 있다.

주제공원을 내부 공간으로 정의하고, 주변과의 관계와 물의 특성에 따라 자연과 공원, 도시와 엔터테인먼트, 레저와 문화의 세 부분으로 영역을 구분하고 있다. 리릭 아일랜드(Lyric island), 크리스탈 아일랜드(Crystal island), 문화의 섬(Culture island), 크리스탈 광장(Crystal Plaza)은 네 개의 섬을 나타내며, 각각에 공간별·이벤트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다. 입체 동선계획을 통해 주변 맥락과 접근성을 확보하고, 친환경 식생모델을 제안하며 해안 방풍림을 계획하고 있다.

프롤로그를 비롯하여 계획 개념과 전략, 기본구상 등을 살펴보면, 4차원의 장소인 공원의 상징적 의미가 숫자 4로만 치환된 듯이 보이며, 세 개로 구분된 영역 속에 각각 전통문화, 수변시설, 생태를 상징하는 섬을 조성하고 이들이 종합적으로 만들어내는 호수공원을 단순히 네 번째의 섬, 보석이라고 설정하고 있다. 상위계획인 경관계획 상의 영역 구분에 충실하며, 전략이나 개념에 있어서 무난한 안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념이 숫자의 상징성에 치중하고 있어, 이후의 설계를 풀어나가는데 여러 가지 한계점이 노출되고 있다.

## 3) 3등작 1 One hundred Garden isLand(디스퀘어와 디자인엘)

두 개의 3등작 중 하나인 이 작품은 프롤로그-개념의 전개-

공간구상 전략-프로세스-프로그램-공간상세-프로그램-식재·시설물 및 포장계획-청라지구 전체 마스터플랜 순서의 설계 설명서를 제출했다. 물의 성질은 도(道)에 가깝다는 노자의 말을 인용하며 물을 강조하고 있고, 가든 아일랜드(Garden isLand)를 위한 세그먼트, 지그재그, 큐빅 등의 개념을 도입하여 공원에서의 다양한 체험과 일상성의 중첩, 경계 없는 확장 등을 제안하고 있다. 또한, 유기적 연결, 장소 창조, 편리하고 분산된 접근 등을 구상하고 있으며, 설계의 모티브로 과거의 섬, 미래의 도시, 자연의 흐름, 물방울 등을 도입하고 있다.

세 개의 주제공원은 구획상의 영역 구분을 기준으로 한 것이 아니며, 물과 섬의 관계를 통해 아일랜드(isLand), 랜드(land), 워터(water)로 구분되고 있다. 이용에 따른 가변적 축제의 형태가 제안되고 일상적인 프로그램이 도입되며, 다양한 경관과 입체적 가로, 생태적 서식환경 등의 조성을 제시하고 있다. 크리스탈 조명과 루비벤치, 테라스와 홍보용 키오스크 등의 시설물 계획과, 떠 있는 섬, 익스트림 섬, 물놀이와 야생의 섬, 한국 정원의 섬 등이 계획되어 있으며, 청라지구 전체의 구상에 대해서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혼성 개념을 제시하고 각각의 공원에 테마를 부여하고 있다.

이 작품은 상징성을 요구하는 지침서의 해석과, 부지에 주목하여 설계 개념을 추출하는 두 가지 방식을 혼용하여 사용한 점에 주목할 만하다. 또한, 공원 조성의 과정에 있어서 지형을 조작하고, 물을 넣고, 테마파크를 조성하고, 프로그램을 입히는 단계별 과정을 선보이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전체적으로 도시공원의 다양성과 복잡성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각 공간이 스스로 변화하며 발전할 여지를 남겨 주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잘 짜여진 테마와 개념의 조직 속에서 공원의 미래상이 제시되고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 4) 3등작 2 Crystal Park(세림)

또 하나의 3등작인 이 작품은 설계의 방법-개발 컨셉 및 전략-계획개념-기본구상-계획개념-녹지체계의 순으로 설계 설명서를 구성하고 있다. 이 작품은 자연과 화합하며 지속가능한 개발, 음과 양의 조화를 위한 태극 도입, 자연과 문명의 공존, 민족의 고유한 정체성 등의 1980-90년대 조경설계의 진부하고 관습적인 설계 어휘가 기본 개념으로 제시된 점이 오히려 독특하다. 개념을 대표하는 태극의 형태가 공원 평면 전반에 걸쳐 직설적으로 사용되었고, 이는 특히 그 의미와 내용을 창조적으로 재해석하기보다는 표피적 이미지와 형식만을 따온 설계안이라고 판단된다. 다른 작품들에서 거의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네트워크나 주변맥락의 고려, 연계성 등의 전략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도 오히려 이 작품을 특징적으로 보이게 하고 있다.

## 5) 출품작 1 Park, City Operator(프롬과 풍경)

설계 설명서는 크게 프롤로그, 도시읽기, 문화공원담기로 나뉘지며, 대상지파악-설계목표-설계전략-계획구상-프로그램-주요공간-친환경계획-경관, 식재·시설물·포장·운영관리계획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도시공원은 도시를 활성화하는 동력원이라는 시각으로 문화공원으로서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대상지를 매립지로서의 특성과 메마른 도시 구조를 가진 무채색으로 보고 공원을 통해 도시에 색을 입히고자 하며, 컨베이어 파크 시스템으로서 거점, 시스템, 벨트의 조합 개념을 도입해 도시공원의 흐름을 네트워킹하고 있다.

주제공원은 청라를 움직이는 거대한 동력인 파워 스테이션(power station)이라고 설정하고, 생태적 해석에 의해 땅과의 접촉면을 극대화하며 수순환 체계를 조직하고 있다. 도시 구조와 문화를 담는 틀로서 다이나믹 엔진(dynamic engine)을, 스스로 진화하고 성장하는 바탕으로서 디퓨시브 엔진(diffusive engine)을 기본 전략으로 삼고 있으며, 공간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공간을 엔진으로, 동선을 컨베이어로, 거점을 동력으로 해석하고 있다. 또한, 에머랄드 숲, 다이아몬드플라자, 루비아트센터, 진주빛 해변, 한글을 평면상으로 배치한 한글마당, 안압지를 형상화한 수변, 화회 마당 등의 공간 조성을 꾀하고 있다. 도시공원을 도시의 심장이나 엔진으로 파악하여 공원의 위상을 설정하고 연계를 강조한 점 등은 주목할 만하다. 그러나 이러한 개념이 전략이나 설계안으로 구체화되는 과정에서 다른 관점들-예를 들면, 보석이나 한글, 전통 하회탈 등-이 개입되어 설계를 주도한 측면이 나타나는데, 이로 인해 개념과 설계 사이의 상호 연관성을 찾기 어렵다.

#### 6) 출품작 2 山水戰略(다산건설턴트와 오피스박김)

프롤로그-대상지이해-네트워킹-기본방향-공원의 작동-시스템계획-식재·시설물·포장·야간조명계획의 순서를 취한 설계 설명서가 제출되었다. 물이 변하여 땅이 되고 땅이 다시 변하여 물이 되니 물을 다루는 것은 곧 산을 다루는 것과 같다는 의미의 산수전략은 청라지구가 문화 허브공간이며, 임해매립지라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대자연(청라도)-복원된 자연(복원하천)-문화화된 자연(도시공원)의 단계, 도시의 수평과 수직성의 대립, 주변과 연계된 수변 문화공간 등이 기본개념이며, 시티타워의 수직성에 대응하기 위한 수평적 블루릿지(blue ridge)를 계획하고 있다. 이는 물속에 떠 있는 산, 즉 '푸른 능선'으로, 여기에는 경사를 달린 야외수영장과 에스플라나드(esplanade) 등이 계획되어 있다. 주변과의 관계 설정을 통해 주제공원을 가족레저가든, 워터풀, 섬숲으로 나누었고, 블루릿지를 중심으로 도시가 확장되며 청라시민과 방문자의 라이프스타일이 이끌어지도록 하였다.

이처럼 산수전략은 도시의 수직성과 수평성에 초점을 두며 블루릿지를 통해 청라지구의 새로운 상징성을 찾아가고자 하

였다. 대상지의 특수성을 개념적으로 추출하였고 수평적인 연속적 경관을 통해 독특한 장소성의 창출을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개념과 그 추출 과정이 상징성에만 중점을 두어 블루릿지가 도시에서 하는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것으로 보인다. 단순한 접근로 확보나 여가·문화 활동의 테마공원이 아닌, 본질적 의미의 인프라스트럭처에 대한 접근이 충분하지 않다고 여겨진다.

#### 7) 출품작 3 Big Reflection(그룹한)

이 작품의 설계 설명서는 프롤로그-공간구상-설계방향-기본구상-세부공간계획-경관계획-프로그램-친환경계획-식재·시설·포장계획으로 이루어져 있다. 시티타워와 이의 장대한 투영(big reflection)에 중점을 두고, 세 개의 영역 구분을 통해 생태, 상징, 이용의 측면을 고려한 레크리에이션 파크, 리플렉션 파크, 습지 파크 등의 주제공원을 계획하고 있다. 호수면을 들어 올려 접근성과 경관적 특성을 높이는 독특한 해법을 제시하고 있으며, 저류조와 콘코스를 설치하고 주운시설과 생태 레크리에이션의 물을 분리하여 공원과 도시의 연계를 도모하고 있다. 탐방코스를 도입하여 이용을 극대화하고자 하며, 친환경 계획과 토탈 디자인에 대해서도 제안하고 있다.

단순히 호수의 경계부만 활용하거나 호수를 바라보는 대상으로만 여기기보다는 거대한 상징성을 담아내는 2층 구조의 입체적 시설로 접근한 점은 매우 독창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경제성과 유지관리 측면에서 다양한 문제의 소지가 있고, 공원과 도시의 연계가 오히려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주제공원을 단순히 주어진 세 가지 주제만으로 구분한 점은 공원의 다양성을 담아내기엔 일면 부족할 수도 있다고 보인다.

#### 8) 출품작 4 Crystallizing the Tideland(우리엔디자인팀)

이 작품의 설계 설명서는 프롤로그-대상지분석-단계별계획, 연계, 주제공원전략-프로그램-지반안정화계획-수변계획-경관계획-포장·시설·구조물 계획의 순서로 구성되어 있다. 부지를 푸른 그물과 갯벌로 파악하여, 갯벌과 같은 마운드의 골격을 구축하고, 공원을 통해 도시의 관계망을 직조하며, 단계별 개발과 함께 공원 프로그램을 순차적으로 도입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도시의 연도별 개발 단계에 대응하여 도시공원도 단계적 인프라스트럭처의 구축과 함께 진화해 간다고 보고 있으며, 허브-노드-링크의 개념을 적용한 네트워킹 시티를 제안하고 있다.

주제공원은 골격구축-혈관연결-표면도입의 과정에 의해 형성된다고 설정하고 있는데, 식재기반 조성을 위한 마운딩 과정이 가장 중요한 골격이며, 도시와의 관계를 설정하는 관계망 직조를 혈관에 대입하고, 프로그램 시스템을 통해 표면이 입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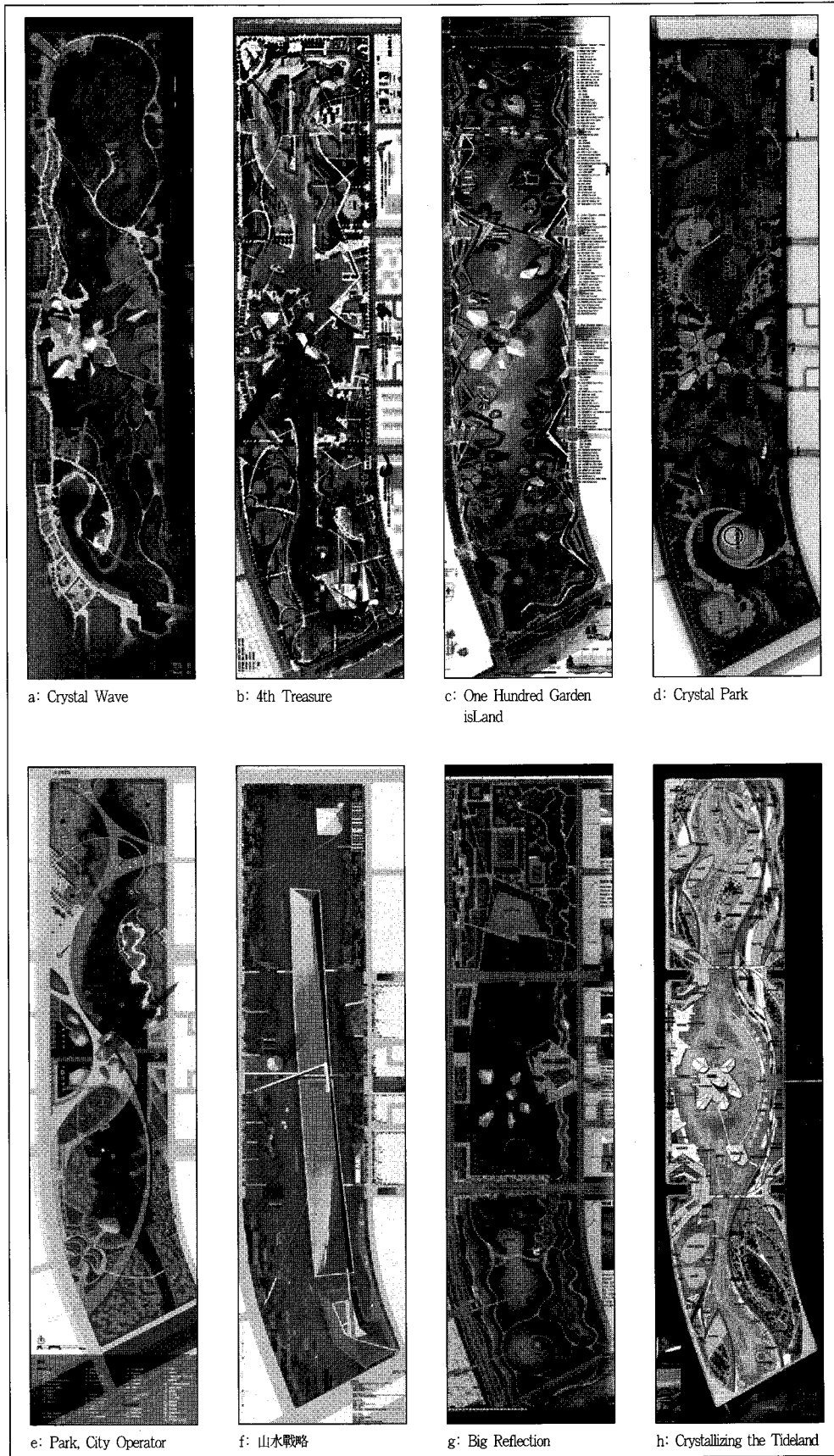


그림 1.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 출품작 마스터플랜

진다. 시간대별 프로그램과 유지관리계획이 제안되고 있으며, 마운딩을 통한 식재기반 안정화와 단계별 식생 조성계획을 마련하고 있다. 다양한 수변 경계 처리를 통해 생태적·이용적 측면을 강화하고 있으며, 크리스탈 부스, 단 차이를 활용한 상가 계획 등을 제시하고 있다.

이 작품은 대상지의 과거 맥락과 이후의 개발계획 간의 간극을 과정의 개념으로 접근한 점이 다른 작품들과 차별적인데, 이를 마운딩으로 해석하여 단계별 전략으로 도입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그러나 과정이나 접근 방법에 치우쳐 마운딩의 다양한 형태나 작동 과정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으며, 갯벌의 개념과 마운딩의 전략 사이에 밀접한 연관 관계가 보이지 않는다. 주변과의 관계를 통해 도시공원을 진화시킨다는 점은 설득력이 있으나, 이러한 것들이 공원 내 연계성과 체계성을 형성하고 있지 못하며, 또한 프로그램들이 도시 전반에 제공하는 의미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물의 사용도 호수 경계부에 한정되어 있어 적극적이지 않으며, 지침서 상에서 요구한 테마로서의 도시 상징성이나 정체성 부분에 대한 설계적 해법이 부족하다고 보인다.

이상과 같이 각 작품별로 설계 개념과 전략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핵심적인 공통의 경향을 발견할 수 있었다. 첫째, 대부분의 작품들은 설계의 개념을 부지의 특수성에서 찾고 있다. 1등 작은 물결과 경작에서, 3등작 1은 물과 섬에서, 출품작 2는 물과 땅의 관계에서, 출품작 3은 호수로의 투영에서, 출품작 4는 갯벌과 그물에서 각각 부지의 특성을 반영하는 개념을 적용하고 있다. 둘째, 청라지구 전체에 대한 네트워크 구상은 거의 모든 작품에서 언급되고 있다. 나타나는 양상은 약간씩 달랐지만, 대부분 녹지, 물, 교통, 보행, 이용 행태 등을 통한 체계적 네트워킹의 구현에 주목하고 있다. 셋째, 상위계획의 공간과 용도 배분, 그리고 보석의 테마를 반영한 작품들이 많았다. 상징성을 나타내는 요소로 1등작, 출품작 2, 출품작 4를 제외한 모든 작품의 부분적 공간에 각각 테마의 요소가 포함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상징성 구현이 시도되고 있다. 넷째, 대부분 주변부와의 관계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으며, 도시를 향해 열린 구조의 도시공원의 역할에 대해 중점을 두고 있다.

## 2. 분석들을 통한 출품작 분석

앞 절과 같은 작품별 분석은 설계 과정과 방법에 나타난 주요 개념과 핵심 전략을 진단하는 과정으로, 전반적인 설계의 흐름과 경향을 파악하기에 용이하다. 또한 특정한 분석들을 대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다 자유로운 작품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점을 지닌다. 그러나 이러한 식의 분석에는 분석자의 주관과 취향이 일면 개입될 수도 있고, 다른 작품과의 비교가 쉽지 않은 한계점 또한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다음에서는 도시기

표 4.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 분석틀

설계전략	분석 항목
네트워킹	① 작동하는 모든 힘과 요인을 상호 연관지었는가? ② 시공간적 관계의 매트릭스가 적용되었는가?
	③ 각 공간들이 체계적으로 연계되었는가? ④ 주제공원이 도시의 거점 역할을 하고 있는가?
	① 부지의 내재적 시스템과 특성을 고려했는가? ② 사회·역사·문화적 장소성을 구현하였는가?
	③ 새로운 장소적 특성을 창조하였는가? ④ 도시를 상징하는 명소화의 기능을 하고 있는가?
생태	① 도시를 생태적 프로세스로 바라보고 있는가? ② 대상지 환경 부원을 생태적으로 견고하고 있는가? ③ 생태적 안정성을 꾀하고 있는가?
	① 광역적 스케일로 도시를 바라보는가? ② 스케일의 중첩을 통하여 다양한 맥락들을 고려하였는가? ③ 다양한 스케일의 공원 및 녹지에 주목하였는가?
	①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를 고려하였는가? ② 사회·문화적 측면에서의 영향을 고려하였는가? ③ 법규, 정책 등을 고려하였는가?
인프라스트럭처	① 도시환경과 기능을 강화하는 기법시설로 보았는가? ② 도시민의 문화공간으로 기능하고 있는가?

범례: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분석 항목, ■ 설계지침서의 분석 항목

반시설로 기능하는 도시공원의 역할에 비중을 두는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분석틀에 토대를 두고 각 작품들을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틀은 표 2의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설계전략별 분석 표'와 표 3의 '설계지침서의 설계 기준'을 조합하여 작성하였다. 지침서의 설계 기준에서 추출된 주요 전략을 중심으로 지침서의 내용과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내용을 비교·검토하여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의 분석틀을 표 4와 같이 설정하였다.

이와 같은 분석틀에 토대를 두고 각 작품의 전략이 도시기반 시설로서 도시공원을 대하는 내용과 양상을 분석하였다. 분석틀의 대입은 가능한 구체적으로 내용을 명기하여, 단순한 적용 여부를 묻는 차원이 아니라 어떤 식으로 적용되었는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였다. 분석틀을 통한 출품작의 분석 결과는 표 5와 같다.

## 3. 종합 분석

### 1) 네트워킹 측면의 분석

네트워킹과 관련하여 지침서에서 요구된 것은 각 공간들의 체계적 연계, 그리고 주제공원의 도시 거점 역할이었다.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관점에서 네트워킹은 단순한 물리적 요소의 연결보다는 대상지에 작용하는 다양한 힘과 원리를 상호 연관시키며 시공간적 관계를 설정하는 것에 비중을 둔다.

분석틀을 통해 각 작품들의 네트워킹 측면을 고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작품은 지침서가 요청한 네트워킹에 대해 언급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는 녹지, 물, 보행, 문화 공간 등 각각의 점적 요소를 선적으로 연결하는 수준에 그친 경우가 많았고, 각 요소별 네트워킹의 통합이나 상호 연계성에 대한 시도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반면 네트워킹을 통합된 시스템으로 이해한 컨베이어 벨트나 허브-노드-링크 등의 개념은 주목할 만하나, 컨베이어 벨트의 개념은 구체적 설계안으로 이어지지 못했고 허브-노드-링크의 개념도 단순한 연계에 그치는 등의 한계점을 보였다. 또한, 시간적 고려를 통해 네트워킹에 주목한 것은 단 한 작품에 그쳤다. 이처럼 각 요소별로 끊어진 선을 연계하는 것 자체에만 주목하기보다는 통합적 네트워킹 시스템을 적용하여 부지에 작용하는 모든 힘과 요인을 총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며, 이를 구체적으로 설계안에 적용될 수 있는 방법들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2) 부지 측면의 분석

부지에 대해서는 대부분의 작품이 주목하고 있었으나, 부지의 생성 과정이나 작동 원리 등의 내재적 시스템보다는 상징적인 요소나 개념을 통해 대상지를 특성화하려는 경향이 지배적

이었다. 예컨대 갯벌이 매립되어 농경지로 이용된 부지의 이전 생성 과정을 언급한 예는 많았으나, 그 자체에 주목한 예는 “산수전략” 한 작품에 불과했다. 대부분의 작품은 물이 가지고 있는 물결이나 투영성과 같은 일반적 속성에 주목하거나 일부 섬의 도입 등의 시도에 그쳤다. 상징성을 요구한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작품은 개념적 상징을 끌어오거나 다양한 테마 요소를 도입하는 등, 개념이나 이미지 위주의 설계 경향을 보였다.

부지의 대표적 이미지로 개념을 풀어나가는 방식은 설계가의 주관적 해석에 의존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이처럼 단순화한 대표 이미지는 성격이 비슷한 다른 장소에서도 충분히 고려될 수 있으므로 그 장소만의 순전한 특수성이라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 부지의 내재적 특성을 찾아내고 그 장소만의 복합적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설계 방법이 요구된다.

3) 생태 측면의 분석

모든 작품들이 생태를 다루고 있었으며, 주로 열악해진 식재 기반과 물의 정화에 대해 주목하였다. 마운딩 구축이나 습지 조성 등 같은 방법을 통해 생태계를 복원하려는 경향도 있었으나, 단순히 녹지축을 연결하여 생태축을 복원하려는 경향이 많았다. 도시와 공원의 생태적 관계에 주목한 작품은 한 개에 그

표 5. 분석틀을 통한 각 출력작들의 분석

전략	Crystal Wave	4th Treasure	One hundred Garden isLand	Crystal Park	Park, City Operator	山水戰略	Big Reflection	Crystallizing the Tideland
네트워킹	· 녹지, 친수, 친환경 교통, 문화네트워크 · 문화네트워크의 연계	· 녹지연계 추가 · 문화 공간들의 동선 연결	· 디지털+아날로그: Digi-Logue · 녹지, 보행, 블루 네트워크 · 보행네트워크 부분 추가	· 단순한 설계 지침의 나열	· 흐름 형성 체계 · 컨베이어벨트에 비유 · 거점 공간 배치	· 그린,공원,블루, 휴먼 네트워크 · 선적으로 연결	· 공원 보행, 자전거 네트워크 · 분산, 집중, 연계	· 허브-노드-링크 네트워킹 체계 · 연계를 위한 추가 녹지 지점 제안 · 직간접적인 연계
부지	· 부지를 둘러싼 보도, 주차, 자전거 도로, 문화 공간의 중요	· 40개, 4,000미터 등으로 상징성 부여	· 공간 이미지의 주목 · 녹지, 보행, 블루 네트워크	· 태극을 통한 상징성	· 테마 요소를 통한 장소성 추구	· 이미 있던 부지를 중심으로 단둥고 도시 규모 추이의 외형보다는 결구론에 주목	· 거대한 구조의 거울못을 통한 상징성	· 녹지의 생태적 본질 문제가 주목 · 상징 제시
생태	· 자연 생태 복원	· 생태적 잠재력 복원	· 생태적 잠재력 복원	· 생태축을 통한 자연환경복원	· 땅 만지기와 수순환	· 생태축 복원	· 자연생태와 마운딩 언급	· 도시와 공원의 생태적 관계 주목 · 유묘적 관의 녹지
스케일	· 도시와 자연의 다양한 스케일	· 인간적 규모	· 인간적 규모	· 조감도, 사례 이미지	· 휴먼 스케일의 다양한 스케일	· 휴먼 스케일의 사례 이미지	· 휴먼 스케일의 사례 이미지, 프로그램	· 휴먼 스케일의 사례 이미지, 프로그램
인프라스트럭처	· 인프라를 통한 도시의 연계	· 그린인프라	· 인프라를 통한 도시의 연계	· 단순한 설계 지침의 나열	· 동선을 통한 문화 공간 연결	· 도시 인프라를 고려한 접근성	· 수관을 통해 물의 흐름의 원형의 구축	· 도시의 인프라 구축과 구성 과정에 대한 접근의 통합

범례: ■ 지침서의 분석 항목 충족, ■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분석 항목과 지침서의 분석 항목 모두 충족

쳤는데, 이 작품은 유보지를 활용한 식재와 참여 녹지 등을 제안하였다.

생태계 전체의 측면에서 도시공원의 역할에 대한 언급은 모든 작품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며, 대부분은 공원 내부의 생태와 다른 공원과의 연결을 통한 생태축 형성에만 관심을 두었다. 도시를 역동적인 시스템으로 인식하고 도시공원을 도시라는 생명체의 허파로 바라본다면, 단순한 녹지의 제공 이상을 뛰어넘어 복합적 기능을 수용하며 그 자체로도 진화·발전할 수 있는 도시공원에 대한 지속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 4) 스케일 측면의 분석

광역적 스케일과 세부적인 스케일 모두에 대한 설계안 제시가 지침의 기본적 요구 사항으로, 모든 작품들에서 이러한 고려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랜스케이프 어바니즘 관점의 스케일 개념은 단지 규모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니라 공원 내·외부의 복잡하고 다양한 맥락들이 서로 증첩되어 어떻게 기능하는가의 문제이다. 이와 같은 관점으로 주변 맥락과의 관계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시한 작품들이 다수 있었으며 휴먼 스케일의 관점에서 대상지를 바라본 포도몽타주 기법도 있었는데, 이 역시 랜스케이프 어바니즘과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 5) 인프라스트럭처 측면의 분석

물리적, 사회·문화적, 법적·정책적 측면 등에서 도시의 공간을 이루는 모든 것이 인프라스트럭처로, 지침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도시 환경과 기능을 강화하며 도시민의 문화 인프라스트럭처로 작용하는 도시공원의 역할에 대해 많은 작품들이 공감을 표현하고 있었다. 이는 공원과 학교의 통합적 설계, 축제와 문화를 담는 가변적 이용의 장, 물을 통한 다양한 프로그램 수용 등의 형태로 나타났으며, 허부 인프라 구축을 위해 호수면을 들어 올리는 과감한 설계안도 있었다. 또한, 도시의 인프라스트럭처 구축과 구성의 과정에 초점을 두고 도시와 공원과의 관계를 모색한 작품도 있었다. 물리적 인프라스트럭처 구축을 통해 도시의 다양한 기능을 수용하고 활성화시키려는 경향이 출품작 다수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V. 결론

인천청라지구 조경설계공모는 도시 전반에 걸쳐 공원이 도시기반시설로서 어떠한 작용을 할 수 있는지, 그 설계적 해법의 현 수준을 가능하게 해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앞의 다층적 분석과 다각적 고찰을 바탕으로, 우리는 개발지구의 도시기반시설로서 도시공원의 설계가 제기하고 있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확인하고 그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첫째, 개발지구의 특성상 도시공원 역시 전체 도시의 마스터플

랜과 세부 공원의 설계가 함께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네트워킹이나 스케일의 문제가 중요하며, 이는 단순한 요소적 연계의 문제를 넘어선다. 복잡한 도시 생활을 담아낼 수 있는 통합적 시스템, 상호 연관관계에 따른 다양한 맥락, 그리고 시간성을 고려한 시공간적 매트릭스 등에 대한 분석과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개발지구의 새로운 도시 이미지 창출을 위해서 도시공원의 장소성과 상징성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이는 부지의 특수성에서 도시의 상징성을 추구하려는 경향으로, 단순한 랜드마크적 기능의 기념물이나 상징물의 설치는 물론, 최근에는 공간 구조나 자연적 요소를 통해 상징성을 표현하려는 경향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경향들은 주로 요소나 개념에 의해 특성을 구현하려는 태도로 치우치고 있다. 부지의 내적 작동원리나 특성에 토대를 두고 도시 정체성을 구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탐색이 요청된다.

셋째, 생태의 문제는 어느 도시공원, 어느 작품에서나 모두 언급되고 있으며, 녹지량의 문제와 같은 정량적 태도에서부터 환경의 복원 및 정화 기능, 그리고 자연의 적극적 활용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역동적 시스템을 조절·확장해 주는 도시공원의 조성 방식을 도입한 작품이 일부 있기는 하나, 전반적으로 생태계 전체의 측면에서 도시와 공원의 관계를 주목하는 경향을 발견하기란 쉽지 않다.

넷째, 개발지구 내 도시공원의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기능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주변과의 통합, 다양한 프로그램, 문화공간의 조성 등은 도시에서 기능하는 도시공원의 인프라스트럭처적 측면을 강조하는 것으로, 청라지구에서는 물을 주요 인프라로 보고 도시의 다양한 기회와 유연성을 획득하는 중요 수단으로 삼았다. 인프라스트럭처로서의 다양한 시도는 주변 구조나 도로 등과 연계하여 진행되었는데, 앞으로는 더 많은 사회적 인자들에 대한 충분한 고려를 통해 그러한 시도들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주 1. 본 논문에서 개발지구는 [도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시행규칙 제5조 별표 2에 따른 법적 근거에 의해 신도시개발이나 재개발사업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계획이 시행되는 지역을 총칭하는 의미로 사용된다.

주 2. 심우경(고려대학교)이 심사위원장으로, 박승범(동아대학교), 박용진(강릉대학교), 백경중(한국토지공사), 신규환(SH공사), 안병구(한국토지공사), 안성로(신구대학교), 이창환(상지영서대학교), 정병록(인천경제자유구역청) 등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였다.

## 인용문헌

1. 김수연(2000) 조경설계 작품분석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 김아연(2005) 브리지 파크 국제설계경기에 나타난 현대 조경설계의 경향. 한국조경학회지 33(5): 15-30.
3. 김아연(2006) 랜스케이프 어바니즘의 관점으로 본 춘천 G5 국제설계경기 출품작 분석. 한국조경학회지 34(3): 120-138.
4. Waldheim, Charles, and James Corner, Grahame Shane, Richard Weller, Christophe Giro, Julia Czerniak, Linda Pollak, Kelly Shannon, Elizabeth Mossop, Jaqueline Tatom, Alan Berger, Clare Lyster, Pierre Belanger,

- Chris Reed(2006)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2007.
5. 배정한(2002) 다운스뷰파크 국제설계경기를 통해 본 조경설계의 새로운 전략. *한국조경학회지* 29(6): 62-71.
  6. 배정한(2004) 현대조경설계의 이론과 쟁점. 성남: 도서출판 조경.
  7. 서준원(2008) 행정중심복합도시 도시개념 국제공모작품에서 나타난 한국과 서양의 설계개념 형성.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8. 위재송(2003) 한국 현대공원설계 경향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9. 이상민, 조정송(2004) 서울숲 조성 설계공모에 대한 비판적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31(6): 15-27.
  10. 이상민(2006) 설계매체로 본 한국 현대 조경설계의 특성: 현상설계 작품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1. 조경비평 봄(2008) 봄, 디자인 경쟁시대의 조경. 파주: 도서출판 조경.
  12. 조경진, 김정호(2001) 조경설계에 있어서 전통정원의 현대적 재현의 특성. *한국조경학회지* 28(6): 84-95.
  13. 최정민(2007) 신도시의 공원들. *환경과 조경* 2007년 4월호: 136-139.
  14. 한국토지공사(1998) 도시기반시설의 효과적인 공급체계와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15. 홍성권, 이민우, 이상민, 안명준(2007) 도시공원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도입시설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5(4): 29-36.
  16. Baljon, L.(1992) *Designing Parks*. Amsterdam: Garden Art Press.
  17. Beardsley, John(2007) Conflict and erosion: The contemporary public life of large parks. In J. Czerniak *et al.*,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98-213.
  18. Belanger, Pierre(2007) *Synthetic Surfaces*.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19. Berrizbeitia, Anita(2007) Re-placing Process. In J. Czerniak *et al.*,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74-197.
  20. Corner, James(2007) *Terra Fluxus*.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21. Czerniak, Julia(2007a) Looking Back at Landscape Urbanism: Speculations on Site.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22. Czerniak, Julia, Nina-Marie Lister, Elizabeth K. Meyer, Linda Pollak, George Hargreaves, Anita Berrizbeitia, and John Beardsley(2007)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23. Czerniak, Julia(2007b) Legibility and resilience. In J. Czerniak *et al.*,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214-251.
  24. Girot, Christophe(2007) Vision in Motion: Representing Landscape in time.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25. Hargreaves, George(2007) Large parks: A designer's perspective. In J. Czerniak *et al.*,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120-173.
  26. Lister, Nina-Marie(2007) Sustainable large parks: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In J. Czerniak *et al.*,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34-57.
  27. Meyer, Elizabeth K.(2007) Uncertain parks: Disturbed sites, citizens, and risk society. In J. Czerniak *et al.*,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58-85.
  28. Mossop, Elizabeth(2007) *Landscape of Infrastructure*.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29. Pollak, Linda(2007a) *Constructed Ground: Questions of Scale*.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30. Pollak, Linda(2007b) Matrix landscape: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large park. In J. Czerniak *et al.*,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pp. 86-119.
  31. Reed, Chris(2007) *Public Works Practice*.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32. Shane, Grahame(2007) *The Emergence of Landscape Urbanism*.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33. Shannon, Kelly(2007) *Place as Resistance: Landscape Urbanism in Europe*.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34. Tatom, Jaqueline(2007) *Urban Highways and the Reluctant Public Realm*.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35. Weller, Richard(2007) *An Art of Instrumentality: Thinking through Landscape Urbanism*.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36. Waldheim, Charles(2007) *Landscape as Urbanism*. 김영민(역).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파주: 도서출판 조경.

원 고 접 수 일: 2008년 10월 31일

심 사 일: 2008년 11월 24일

게 재 확 정 일: 2008년 12월 3일

3인익명 심사필